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1. 19.(일) 11:00, 배포 2023. 11. 17.(금) 오후
(지면) 2023. 11. 20.(월) 조간

친환경 새우양식 전문가 최상훈 씨 등 3명,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

- 11월 20일(월) 제7회 해양수산인재육성의 날 기념식에서 인증서 수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친환경 새우 양식 기술을 보급한 최상훈 씨, 수산물 튀김 대중화에 기여한 김미선 씨, 해파리 식품 가공에 앞장선 김선열 씨 등 3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5명의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선정하였다.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최상훈 씨는 지하 암반 저염수를 활용해 새우의 발병률을 낮추고, 미생물, 태양광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새우 생산 체계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미선 씨는 수산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식감을 살려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물 튀김기술을 개발하고, 간편식 형태로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입점시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선열 씨도 해파리 냉동기술을 개발하고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 형태로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유통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11월 20일(월)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제7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행사에서 2023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3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에게는 수출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신지식인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적 시도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460)
	소득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은 (044-200-5463)

참고

2023년도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자

순위	이름	관련 내용
대상	<div>  <div>최상훈</div> </div>	
최우수	<div>  <div>김미선</div> </div>	 
		 
우수	<div>  <div>김선열</div> </div>	 
		 